

조선초기 맹암 김영렬의 삶과 군사활동

김경록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정치외교사 전공

kkkjy@naver.com

- I. 머리말
 - II. 조선건국기 김영렬의 관직활동과 삶
 - III. 김영렬의 군사활동과 역사적 의미
 - I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의 건국은 고려말 사회모순을 개혁하고 새로운 유교적 통치이념에 입각한 양반관료제 사회의 시작이었다. 국왕을 정점으로 한 사대부의 정치인 왕도정치와 덕치를 추구하였으며, 제도적으로 관료제도를 정립함과 동시에 공론을 바탕으로 한 도덕정치를 통해 민생안정과 문물의 발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오랜 원 간섭기의 남겨진 흔적과 부원세력에 의한 사회모순은 고려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변화가 부족하였다. 특히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란 대외적 상황과 함께 고려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조선건국 세력간의 갈등과 함께 건국주체 내부적인 분화는 조선 건국기의 정치, 군사, 사회, 외교적 변동성을 가져왔다.

역사적인 역성혁명과 조선의 개국은 단순한 왕실과 지배층의 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지향의 변화, 통치이념의 변화, 다스림에 대한 인식변화, 왕조교체를 통해 조선의 수많은 인간의 삶이 새로운 기대감을 가졌다. 국왕을 정점으로 하되 주례(周禮)에 입각한 공공의 정치를 지향하였던 정도전은 조선을 개국하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태조로부터 큰 신임을 얻어 정치에서 문화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설계자로 역할했다.¹

이와같이 대외적으로 대륙은 원명교체의 격동기에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 중심 국제질서로 전환되며 다양한 국제질서는 안정과 격동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국제정세의 변화를 초래했다. 대외적 긴장은 건국초 조선의 정세변화에 영향을 주어 태조대 정치, 군사, 제도개혁의 주된 역할을 하였던 정도전의 위기를 초래하고, 또 다른 절대적인 건국의 주도자였던 이방원의 등장을 초래했다. 국내외 정세의 급변과 왜구를 비롯한 군사상황

1 한영우,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지식산업사, 1999).

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대배경에서 발생한 2차 왕자의 난은 태종의 시대를 열었으며, 건국세력의 부침을 가져왔다. 비록 왕조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지만 이 변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주도했던 인물은 여전히 시대와 함께 삶을 살아갔다.

건국군주 이성계를 중심에 두고 정도전과 이방원이란 인물에 의해 시대의 지향점이 갈등하고 융합하여 조선건국시기의 거센 역사는 전개되었다. 건국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개성, 한성, 바다로 이어지는 공간 속에서 역사는 다양한 삶의 궤적을 남겼던 인간을 기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여 역사의 진실과 의미를 매우 한정적으로 전승했다. 이에 조선 건국과 함께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좌명공신으로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건국초 출몰하던 왜구를 제어한 공로가 높았음에도 주목받지 못한 역사인물 김영렬(金英烈)의 삶과 군사활동을 복원해 보고자 한다.²

현재까지 남겨진 기록과 기억을 정리하면, 김영렬(1370~1404)은 자가 열지(烈之), 호는 맹암(孟巖), 본관은 의성(義城), 부는 김굉(金紘)이었다.³ 1394년(태조 3)에 처음 관직에 나아가 전서(典書)로 있으면서 경기도도 수군절제사가 되어 연안을 노략질하는 왜구를 물리쳤고, 1395년(태조 4)에는 과거에 합격한 후 수군절제사로 발탁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실책을 범하여 1397년(태조 6)에 용진으로 유배된 후 수군에 충군되었다가 다음해에 복직되었다. 1400년(정종 2)에는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로 있으면서 제2차 왕자의 난에서 공을 세워 1401년(태종 1)에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 3등에 책봉되었다. 1404년 참판승추부사(參判承樞府事)로 있으면서 왜선 1척을 노획한 공로

2 박성호, 「조선초기 좌명공신 김영렬 공신문서에 대한 고찰」, 『고문서연구』 50(2017). 현재까지 유일한 학술연구성과로 김영렬 공신문서가 후대에 작성되어 국가로부터 인장을 받아 전래되었음을 밝혔다. 김영렬 좌명공신녹권은 1401년 원본 공신녹권이 아니라 원본 좌명공신녹권의 내용을 발췌한 抄本이다.

3 『맹암집』(古3428-547), 권2, 행장.

로 국왕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은퇴하여 장단의 맹동(孟洞)에 은거하다 죽었다. 의성군(義城君)으로 봉작되었고 우의정에 추증되었다. 전라도 장성의 학림서원(鶴林書院)에 배향되었는데 1868년(고종 5) 대원군에 의해 철폐되었다. 시호는 양소(良昭)이다.

김영렬의 삶과 관직생활 및 군사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기는 1398년(태조 7)에서 1404년(태종 4)의 시기라 판단된다. 이 시기 2차례 왕자의 난이 발생하여 이방원은 태종으로 즉위하고, 태종은 세자책봉, 한양환도 등을 통해 자신의 즉위와 왕실의 통치명분을 확립하고자 하였던 시기였다.⁴ 이를 위해 태종은 왕도정치를 펼치는 군주상을 천명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⁵ 무엇보다 태종은 즉위와 왕실의 통치에 있어 명분·정통성의 결여로 인해 보다 과격하고 엄중한 통치방식으로 왕권을 확립하고자 했다. 물론 조선의 건국이후 10여년 경과된 시점에 여전히 공신세력 및 고려의 남겨진 세력이 존재하여 정치, 군사적으로 혼란의 시기였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이 시기 김영렬은 수군지휘관에서 왕자의 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정치적 입장을 정하고, 군사와 연관된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공신으로 명실상부한 위상을 가졌다. 본 글은 『태조실록』, 『태종실록』을 중심으로 『맹암집』을 참고자료로 하여 김영렬의 삶과 군사활동을 정리한다.⁶ 물론

4 남지대, 「조선 태종의 왕권 확립」, 『역사문화연구』 53(2015).

5 최승희, 「태종조의 왕권과 정치운영체제」, 『국사관논총』 30(국사편찬위원회, 1991).

6 『맹암선생문집』(古819.51-G429m)은 2권 1책으로 1969년 후손들이 『맹암집』을 대본으로 간행한 책자이다. 권두에金正模, 金壽祖, 沈允之, 김기수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김세약·金應換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권1에 시·疏·書·잡저, 권2는 부록으로 諡狀·延謚顯末과 行狀·事實·鶴林祠禮成祝文·丁享祝文·麥井祠奉安祭文·次孟洞草堂詩·與孟巖金參判書·會盟錄後敘·臥谷影堂重修記·追遠契序·丹書閣上梁文·新川書院記·新川書院奉安文·講堂上梁文·立教堂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실제 맹암의 시대와 관련된 내용은 시, 소, 서, 잡저(회맹록, 공신록) 등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김영렬에 관련된 각종 기록을 모은 것이다. 이에 김영렬의 삶과 군사활동은 『맹암집』과 『맹암선생문집』을 사료비판하여 참고하도록 한다.

위인전기를 서술하고자 하지 않는다. 김영렬이 살아왔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삶을 추적하고 과장과 과소의 우를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역사학적인 복원을 시도한다.

Ⅱ. 조선건국기 김영렬의 관직활동과 삶

여말선초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이며, 사회전반적으로 안정을 추구한 시기이다.⁷ 정치적으로 개국주도세력들이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을 건국하고 새로운 왕조의 등장으로 인한 국왕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의 확립과 체제안정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정치적 대립과 충돌이 많았다.

단순히 정치세력간의 대립이란 관점보다 국제정세와 연관된 조선 건국 시기 정세변화가 주목된다. 이는 뒤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군사상황 및 김영렬의 군사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조선의 건국은 원명교체라는 대륙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⁸ 조선 건국기 대외정책의 핵심은 요동과 여진족에 대한 영향력 향배였다.⁹ 홍무제는 요동군벌 나하추를 정벌하고, 요동에 철령위를 설치했다.¹⁰ 홍무연간 요동경략을 강력하게 추진한 명은 여진족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¹¹ 이처럼 조선 건국기 국제정세

7 조선 건국과 시대배경 및 정세변화는 관료로서, 무장으로써 관직생활을 하였던 김영렬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요소를 고려하여 정치,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서 정리한다.

8 김경록,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 상·하(군사편찬연구소, 2017) 참조.

9 김경록,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 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 35(2011), 13~22쪽.

10 『명태조실록』 권180, 홍무 20년 정월 2일(계축); 권182, 6월 19일(정유); 25일(계묘); 29일(정미); 권189, 홍무 21년 3월 27일(신축).

11 김경록, 「홍무연간 명의 요동경략과 조명관계」, 『군사』 102(2017).

및 국방환경은 전적으로 명의 요동지배체제와 연관된다.

한편, 조선도 군사측면에서 요동을 완충지대로 설정하고, 여진족을 변호(藩胡)로 거주하게 함으로써 북방민족의 남하에 대비하고 경제적 공간으로 자리매김시키고자 했다.¹² 연왕의 반란으로 시작된 명초 내란은 요동인구의 이탈을 가져왔으며, 조선은 만산군(漫散軍)의 송환을 두고 명과 치열하게 군사외교를 펼쳤다.¹³

한편, 이 당시 군사상황을 정리하면, 내부적으로 개국세력 사이에 정국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권력다툼이 발생하여 왕자의 난이란 무력충돌로 이어졌다.¹⁴ 중앙 정계에서 갈등과 함께 고려말부터 지속된 왜구의 출몰과 피해가 심해졌다.¹⁵ 왜구침입은 태조대 지속되어 하삼도를 비롯한 전국적 현상으로 확대되었다. 조선은 1396년(태조 5) 전 수군전력을 동원하여 대마도를 정벌하여 왜구를 소탕하고자 했다.¹⁶ 북방의 여진족, 남쪽의 왜구로 이어지는 군사위기는 태조대 군사상황을 악화시켰다. 군사위기는 자연재해로부터 영향을 받아 민심이 이완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민심의 이완은 군역대상자의 이탈을 의미하며, 각종 군포와 공물상납의 어려움을 가져왔다.¹⁷ 그럼에도 제도정비와 군비강화를 위한 정도전의 노력은 진법훈련 감행으로 나타나 반대파의 반발을 초래했다.¹⁸ 이 와중에 표전문사건이 발생하여 명의 조선에 대한 외교적 압박도 높아졌다.¹⁹ 정도전은 관군중심

12 위은숙, 「13~14세기 고려와 요동의 경제적 교류」, 『민족문화논총』 34(2006), 485~492쪽.

13 김경록, 「조선초기 군인송환문제와 조명간 군사외교」, 『군사』 83(2012): 「조선초기 귀화정책과 조명관계」, 『역사와 현실』 83(2012).

14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8월 13일(무술).

15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8월 18일(계묘).

16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2월 3일(정해).

17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7월 21일(병자). 도성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各道의 군인까지 징발할 것을 언급하자 贊成事 이하 모든 관원이 반대하였다.

18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6월 14일(갑오); 권12, 8월 9일(무자).

의 군사력을 배양하고, 안정적인 국방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병혁파를 단행했다.

정중을 이어 즉위한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정책을 정착시키고자 했다. 당시 연왕의 정난지역이 발생하여 국제정세는 급변했다. 정난지역과 국제정세를 민감하게 분석한 태종은 영락제로부터 고명(誥命)을 받아 봉전(封典)을 완성했다.²⁰ 태종은 왕권강화를 위해 공신과 외척을 견제하고, 군사지휘권을 국왕에게 집중시키고자 했다. 문하부 혁파, 의정부합좌에 삼사·예문춘추관·삼군총제 제외, 삼사와 삼군부의 개편, 육조 기능 강화, 지방군사제도 개편 등 다양한 정치군사적 개혁작업을 추진했다.²¹

김영렬은 어려서 영민하였지만, 고려말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²² 1394년(태조 3) 6월에 25살의 김영렬은 경기우도 수군첨절제사에 임명되었다.²³ 문제는 실록기사와 『맹암집』 행장 기록에 대한 사료비판의 필요성이다. 1370년 태생의 김영렬이 역사기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태조실록』 태조 3년이다. 문집인 『맹암집』에 김영렬의 학식을 듣고 태조가 불러 주부의 관직을 제안한 것도 태조 3년이다. 그러나 건국초기 관직임명의 혼란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영렬이 종3품의 경기우도 수군첨절제사로 임명된 점을 감안하면, 김영렬은 아마 조선 건국과 함께 관직에 나아간 것으로

19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4월 20일(임인).

20 김경록, 「조선초기 종계변무의 전개양상과 대명관계」, 『국사관논총』 108(2006).

21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4월 6일(신축).

22 『맹암집』(古3428-547) 행장. 본 발표문에서 인용하는 『맹암집』은 실록을 비롯한 한정된 자료이지만 최대한 교차검증하여 확인되는 사실만 활용한다.

23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6월 1일(기사). 실록기사에 경기우도 수군첨절제사에 임명된 김영렬의 전임 관직이 전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실록의 오기로 보인다. 당시 수군첨절제사는 종3품이고, 전서는 병조의 최고위직으로 정3품이다. 즉, 전임 정3품을 후임 종3품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직임명제도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는 태종대 『태조실록』을 편찬하며, 사료에 기록된 바와 함께 뒤에 병조 전서를 역임하는 김영렬이었기 때문에 전 전서 김영렬이라 표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보인다. 학식과 무관의 자질을 갖추어 젊은 무관으로 주목을 받았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김영렬이 관직에 나아간 것은 늦어도 1393년(태조 2)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선의 개국과 함께 김영렬의 관직진출 및 관료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관직에 나아간 뒤 김영렬은 하륜, 조영무 등과 밀접하게 교류하며 관직생활을 했다.²⁴ 하륜과 조영무는 태종의 즉위 및 태종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김영렬 또한, 태종의 신임을 받으며 관직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하륜은 태종대 각종 정치를 담당하였던 인물이라면, 조영무는 정치적 위상도 있었지만, 무장으로 군부를 대표하여 태종의 통치를 뒷받침했던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김영렬은 정치, 군사적으로 철저하게 태종의 신임을 받고 태종의 통치를 뒷받침했던 관직생활을 펼쳤던 것으로 보인다.

1394년(태조 3) 6월부터 김영렬은 경기도도 수군첨절제사로 왜구를 방비하며 관직생활을 했다. 1395~1395년까지 경기도도 수군첨절제사를, 1395년 11월부터 경기도도 수군절제사를, 1396년 8월에 중추원부사겸경기도도절제사로 승진하였다. 경기도절제사로 근무하는 동안 김영렬은 조선의 대마도 정벌에 참여하였지만, 기한 엄수를 못하여 탄핵을 받아 처벌되었다. 정치적으로 김영렬의 탄핵은 군사업무 수행에 문제로 탄핵을 받았지만, 실제 김영렬의 정치적 입장이 이방원의 세력으로 분류되어 정도전이 주도하는 정국운영에서 처벌받았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옹진에 유배된 뒤 1년 만에 사면받아 복직하였는데, 1398년(태조 7) 5월에 김영렬은 특별히 사면을 받아 관직에 복직되었다.²⁵ 복직되었다면, 경기도절제사로 근무함

24 『맹암집』(古3428-547) 행장.

25 『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5월 17일(계해). 이때 특별사면으로 총 38명이 사면되었다. 鄭義, 姜淮仲 등 16명과 李龜鐵, 金英烈, 閔中理 등 22명이었다.

을 의미할 것이다. 함께 사면된 이귀철을 비롯한 무장들은 대부분 수군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김영렬은 딸 혼사를 통해 인친관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김영렬은 딸을 한영정(韓永訂)에게 출가시켜 청주 한씨 집안과 인친관계를 맺었다. 녹사공(錄事公) 한녕(韓寧)은 한방신(韓方信)의 아들로 신용위(神虎衛) 녹사(錄事)를 지냈다가 공민왕 시해사건으로 자제위(子弟衛) 소속 형 한안(韓安)이 연좌되어 일가족이 화를 입었다. 이런 경력으로 한녕의 아들 한영정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뒤 벼슬길에 올라 순창군사에 이르렀다. 생몰연대가 불확실한 한영정이 김영렬의 딸에게 장가들었던 점은 한영정의 직계가족보다 청주 한씨라는 집안이 배경되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김영렬 집안의 정경부인 의성 김씨는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이 의절공(義節公) 한확(韓確)으로 조선초기 최대 외척집안이 되었다. 한영정과 김영렬의 딸은 1400년 장남 한확을 낳았다.²⁶ 김영렬은 혼인을 통해 당대 최고 가문을 선택하지는 못했지만, 청주 한씨집안과 인친관계를 맺었다.

김영렬은 1400년(정종 2) 5월 이전에 삼군총제로 승진하였다. 이는 병조 전서였던 김영렬을²⁷ 삼군총제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고신을 처리하는 문제로 문하부와 사헌부가 충돌한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00년(정종 2) 김영렬은 삼군총제(三軍摠制)로 임명받아 고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시기 고신의 서출(書出)은 사헌부에서 맡았다. 삼군총제 김영렬의 고신은 사헌부로 전달되었다. 이에 사헌부 집단 尹向이 김영렬의 고신을 서출하자 겸대사헌 권근과 중승 안성(安省), 집단 김질(金陞) 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26 『세조실록』 권5, 세조 2년 9월 11일(무인).

27 실제 사료인 『태조실록』에는 전 전서라고만 기록되어 있어 육조 가운데 어느 관부 인가를 기록이 없지만, 무관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중군총제라는 무관으로 승진한 점에서 병조전서로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윤향을 탄핵하고자 했다. 사유는 김영렬의 고신에 대해 당시 사헌부 대사헌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서출하였다는 이유였다. 실제 김질이 윤향을 탄핵했다. 그러나 사건은 엉뚱하게 전개되었다.²⁸

문하부는 권근, 안성 등과 헌부차원의 탄핵을 하지 않고 김질이 단독으로 탄핵을 행한 것을 죄를 삼아 김질을 탄핵했다. 문하부의 김질 탄핵에 대해 사헌부에서 반발했다. 감찰 송흥, 유사눌, 성엄 등 12인이 대사헌 권근, 중승 안성 등이 김질과 함께 탄핵을 논의했는데, 김질만 탄핵을 당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이런 분위기는 권근과 안성이 사헌부에 제좌(齊坐)하는 날, 사헌부 감찰들이 권근과 안성에게 지영례(祗迎禮)를 행하지 않은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정종은 문하부로 하여금 사헌부 감찰을 핵문(劾問)하도록 했다. 문하부는 대사헌 권근을 감찰들이 무함하려고 하였다가 탄핵하자 사헌부의 집단 김질이 충주로 귀양받아 가고, 관련된 감찰 송흥(宋興), 성엄(成揜), 유사눌(柳思訥) 등이 외방으로 귀양가고, 감찰 서종준(徐宗俊) 등 10명이 파직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졌다.

김영렬이 삼군총제로 고신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하부와 사헌부의 갈등은 조선 건국이후 인사제도의 정립과정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김영렬이 하륜, 조영무 등의 태종을 추종하는 세력과 밀접한 교유관계를 가졌지만, 권근, 안성 등 중도적인 문관세력과는 교유관계가 상대적으로 소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군총제는 당시 왕도에 존재하였던 군령기구였던 삼군부의 관직이었다. 즉, 왕도에서 실제 병력을 관장할 수 있는 무관직책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지방에서 개성으로 관직을 옮겼다는 점은 김영렬이 이방원 세력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28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6월 20일(계축).

이러한 김영렬의 관직생활을 살펴볼 때, 조선 건국직후 관제 및 인사 관련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건국이후 태조에 의한 관제선포 및 태종에 의한 관제개혁이 주목된다. 이성계는 국왕으로 즉위하자 곧 문무백관의 관제를 제정했다.²⁹ 이때 백사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육조에 정3품의 전서 2명이 두어져 각 조의 직사를 관장했다. 태종은 즉위하자 곧 관제개혁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온 관제를 개편하면 관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었다. 이에 태종은 하륜으로 하여금 관제개혁의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했다.

1401년(태종 1) 7월, 하륜이 개정할 관제를 태종에게 올렸다. 그 핵심은 의정부의 직무를 제한하고, 당시까지 행정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육조를 강화하는 방안이었다. 7월 13일, 태종과 하륜이 관제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³⁰ 하륜이 2명이 임명된 육조의 전서를 한 자리씩 삭제할 것을 건의하자 태종이 당시 상장군, 판각(判閣), 판사(判事)로서 승천(陞遷)하는 자는 반드시 육조의 전서에 제수된 연후에 승진하였는데, 향후 육조의 직무가 강화되면 전서가 총제(總制)가 되어 총괄하니 들도 오히려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육조는 행정조직이었지 정사를 논하는 조직은 아니었다. 그러나 무장의 경우, 군부의 핵심이자 군정과 군령을 관장하는 의흥삼군부로 승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병조의 전서를 경유해야 했다. 김영렬의 전서 역임은 병조 전서로 짐작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대 중반에 정3품의 전서반열의 관직을 역임하였다는 점에서 김영렬의 관직생활은 처음부터 매우 빠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1405년(태종 5) 태종은 대대적인 관제개혁을 시행했다.³¹ 이전까지

29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정미).

30 『태종실록』 권2, 태종 1년 7월 13일(경자).

31 『태종실록』 권9, 태종 5년 1월 15일(임자).

고려의 관제를 시행하였다. 각 사(司)를 총괄한 의정부, 전곡(錢穀)을 관장한 사평부(司平府), 군사업무를 관장한 승추부(承樞府), 전주(銓注)를 관장한 상서사(尙瑞司) 등이 중앙의 주요 관부였는데, 이때에 사평부는 혁파하여 호조로 귀속시키고, 승추부는 병조로, 동반의 전선은 이조로, 서반의 전선은 병조로 귀속시키는 등 의정부의 서무 전반을 6조로 귀속시켜 육조직체계의 틀을 마련했다.

1400년 6월에 삼군총제 김영렬은 황주(黃州)의 유만수(柳曼殊) 딸에게 장가들고자 하였다. 한성에서 황주까지 가서 청혼을 하는 여정은 쉽지 않았다. 당시 법전에 의하면, 삼군총제의 현임관으로 자신의 근무지를 벗어날 때는 사직을 청한 뒤 외방에 갈 수 있었다. 부모를 뵈러 가거나 성묘할 때도 이 법전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김영렬은 법전을 준수하지 않았다. 즉, 김영렬은 온정(溫井)에 가서 병을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사직하지 않고 갔다가 결국 혼사는 성사되지 않았다. 이를 파악한 사헌부에서 김영렬을 탄핵하길 청하였지만, 당시 세자였던 이방원이 이 혼사를 알고 있어 정종에게 직접 청하여 탄핵은 무마되었다.³²

그럼, 김영렬은 법전을 어겨가며 왜 유만수의 딸에게 장가들고자 하였는가? 유만수는 개국원종공신에 책봉된 무장이자 수군지휘관이었다. 유만수는 최씨무인정권을 무너뜨리고 현달하였던 첨의중찬(僉議中贊) 유경(柳敬)의 후손으로 고려말 보마부행수(寶馬陪行首), 장군, 전법판서(典法判書),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역임한 인물이었다. 특히 우왕대 조전원수(助戰元帥)로 이성계와 함께 황해도외 왜구를 격퇴한 공이 있었다. 1383년(우왕 9)에는 경상도원수 겸합포도순문사로 왜구의 침입을 방어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였을 때, 개경진입의 선봉이었으며, 이성계

32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6월 2일(을미).

집권이후 지문하부사로 활약했다. 1389년(창왕 1)에는 절제사로 이방원과 함께 해주의 왜구를 격퇴하고 군부의 대표적인 무장으로 활약했다. 정몽주의 죽음 이후 이성계 추대를 주장하다 유배되기도 했다.³³ 조선 건국으로 개국원종공신에 책봉되었으며, 내정에서 태조와 격구를 함께 할 정도로 태조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었다.³⁴

문제는 비록 1398년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유만수가 이방원세력에 의해 참살당했지만, 실제 유만수가 정도전 세력에 어느 정도 부합했는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사헌 성석용(成石瑢)이 무신으로 진도(陣圖) 강습에 소홀한 인물을 처벌할 것을 건의하자 태조가 원종공신이란 이유로 처벌을 허락하지 않았던 인물이 유만수였다.³⁵ 당시 성석용이 처벌대상으로 지목한 절제사 이지란(李之蘭)·장사길(張思吉)·이천우(李天祐)는 개국 공신, 의안백(義安伯) 이화(李和), 회안군(懷安君) 이방간(李芳幹), 익안군(益安君) 이방의(李芳毅), 무안군(撫安君) 이방번(李芳蕃), 영안군(寧安君) 이양우(李良祐), 영안군(永安君) 이방과(李芳果), 순녕군(順寧君) 이지(李枝), 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 정안군(靖安君) 이방원(李芳遠)은 왕실 지친(至親), 유만수와 정신의(鄭臣義)는 원종공신이란 이유로 논죄되지 않았다. 이외 휘하인물 및 외방 절제사는 모두 곤장형에 처해졌다. 즉, 유만수가 전적으로 정도전과 밀접하게 정치적 입장을 같이 했는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국 이후 개국공로로 이방원은 동북면 가별치(加別赤) 500호를 내려받았지만, 각도의 절제사로 임명될 때 동북면이 아니라 전라도를 맡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가별치를 동북면을 절제하게 된 이방번에게 사양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태조의 신임을 받는 정도전, 남은, 심호생 등이 세력을 장악하자

33 『태조실록』 권1, 총서.

34 『태조실록』 권2, 태조 1년 11월 9일(병술).

35 『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8월 9일(임자). 물론 태종대 편찬된 태조실록이란 점을 감안하여 실제 사실과 편찬의도의 간극으로 좀 더 세밀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이방원과 갈등하였다. 이방원의 지휘하에 지안산군사 이숙번(李叔蕃),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익안군 이방의, 회안군 이방간, 청원군(淸原君) 심중(沈淙), 상당군(上黨君) 이백경(李伯卿), 의안군 이화, 이제, 마천목(馬天牧), 이거이(李居易), 조영무(趙英茂), 신극례(辛克禮), 서익(徐益), 문빈(文彬), 심구령(沈龜齡) 등이 주도하여 정도전 세력에 대한 군사충돌이 일어났다.³⁶ 이 과정에 이무, 박포(朴苞)는 이방원 휘하로 전향하였다. 왕자의 난이 한참 전개되는 과정에 이방원이 삼군부를 확보하고 병력을 점검할 때, 찬성 유만수와 아들 유원지(柳原之)가 이방원을 배알했다. 유만수가 변고소식을 듣고 태조를 시위하기 위해 왔다고 하자 이방원이 갑옷을 입고 말 뒤에 시위하도록 했는데, 회안군과 이천우가 유만수가 정도전세력이니 사살할 것을 주장했다. 이방원은 죽이지 말라 하였지만, 군사위기상황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유만수를 사살했다.

유만수 사살에 있어 실록에 이방원의 관대함을 부각시키는 모습으로 서술된 점은 유만수에 대한 이방원의 입장을 단호한 처결을 다른 모습으로 서술해야 할 정치적 부담을 반증한다. 유만수의 사살은 이방원 처리에 거듭 실록에 등장한다. 왕자의 난 이후 이방원을 통진에 안치하도록 했음에 이방간이 사람을 시켜 중간에 죽였다. 이에 이방원이 이숙번에게 언급하길, “유만수도 내가 오히려 그 생명을 보전하고자 했는데, 하물며 형제겠는가?” 라고 하였던 점에서 정치적으로 유만수는 분명 제거대상이었지만, 태조와의 관계 및 개국공신으로 위상을 고려하여 살려주려 하였다고 이유를 밝힌 것이다. 즉, 유만수는 정도전의 세력으로 무장이었던 점이 제거대상으로 고려되었지만 개국공신이자 태조의 신임을 받던 점에서 이방원 나름 배려가 고려되었던 인물이었다. 김영렬이 유만수의 딸에게 장가들고자

36 『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8월 26일(기사).

하였을 때, 이방원이 정종에게 알려 사헌부의 탄핵을 무마시킨 것은 태조를 염두에 둔 이방원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김영렬의 관직생활에서 제일 주목되는 것은 공신책봉이다. 그러나 실제 김영렬이 2차 왕자의 난에서 어떠한 역할과 활동을 하였는가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이에 2차 왕자의 난 경과과정과 공신으로 책봉된 인물을 중심으로 김영렬의 역할과 활동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1401년(태종 1) 2월 25일, 태종은 북정(北亭)에서 47명의 좌명공신을 소집하여 잔치를 베풀고, 직접 교서·녹권·사패를 주었다.³⁷ 일반적으로 공신을 책봉하고 잔치를 베풀어 위무하였지만, 국왕이 직접 교서 등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매우 드문 행사였다. 이는 즉위한 태종의 친위세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자신의 즉위가 가지는 정당성을 천명하고, 공신세력의 단합을 강조하는 정치행위였다.

조선시대 공신을 훈봉한 사례는 총 28차례였다. 이 가운데 조선건국이후 태종대까지 3차례 있었다. 공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상은 건국의 공훈으로 책봉된 개국공신이다. 태종의 즉위에 이르기까지 태조대 제1차 왕자의 난에 공훈을 세워 책봉된 정사공신(定社功臣)과 정종대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하는 공훈으로 책봉된 좌명공신(佐命功臣)이다. 좌명공신의 경우, 공신 책봉의 차원에서 조선은 특이하게도 명실상부한 지존으로 국왕이 존재하여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왕자의 난을 통해 정치세력이 교체된 사건을 공훈하고, 동일한 세력 중 일부가 거둬 왕자의 난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는 사건에 대해 공훈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김영렬이 활동하였던 시대와 공훈된 사건이 전통적인 왕국체제의 통치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조선을 개국한 개국군주인

37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2월 25일(갑인).

현 국왕의 통치의지와 상관없이 국왕의 신임을 받는 세력을 특정 정치세력이 군사적으로 제거하고 정변을 일으켜 현 국왕을 물리나도록 하고,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즉위한 정종 즉, 현 국왕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이 상호간에 충돌하여 일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군사사건은 개국 이후 정치, 군사적 혼란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치사적 관점에서 보면, 개국공신은 고려 왕조를 대신하여 조선의 건국을 도모하는 가장 광범위한 범위의 정치, 군사세력이 포함된 공신책봉이었다.³⁸ 7월에 왕위에 올라 왕조교체를 이룬 조선 태조는 8월에 공신도감을 설치하여 개국공신 책봉을 준비했다.³⁹ 개국공신은 태조가 직접 선별한 인물로 44명이었으며, 3등급의 공훈으로 구분되었다. 1등급 좌명개국공신(佐命開國功臣)은 배극렴·조준·정도전 등 17명이었으며, 2등급 협찬개국공신(協贊開國功臣)은 박포·조영규 등 11명, 3등급 익대개국공신(翼戴開國功臣)은 심효생·한충경 등 16명이었다. 개국공신은 추봉이 이어져 9월 27일에 7명을, 11월 19일에 또 1명을 추가했다. 결국 조선의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는 개국공신은 모두 52명으로 1등 17명, 2등 24명, 3등 11명이었다.

이렇게 개국공신의 책봉과정은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⁴⁰ 개국공신 책봉은 태조 이성계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며, 공훈이 있는 인물과 새 왕조 경영에 필요한 인물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점이다. 문제는 태조가 선정한 이들의 위차가 대상자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여부이다. 부합여부는 정치적 분쟁의 여지가 있었기에 태조는 신속하게 이들의 기대를 반영했다. 1등급 17명은 조정이 없었지만, 2등급 11명은 24명으로 13명이 늘어났

38 박천식, 「조선 개국공신에 대한 고찰: 책봉 과정과 대우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1(1977); 한영우, 「조선 개국공신의 출신에 대한 연구」, 『조선전기사회경제연구』 (을유문화사, 1983).

39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2일(신해).

40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20일(기사).

으며, 3등급 16명에서 11명으로 줄었다. 3등급 및 처음 발표에서 제외되었던 인물 가운데 적지 않은 인물이 2등급으로 조율되었으며, 새로 3등급으로 포함되었던 것이다.

태조에 선정된 개국공신은 개국군주 태조에 대해 반발할 수 없었다. 정치적으로 충성이 이루어졌지만, 개국공신 사이에 권력다툼은 존재했다. 이러한 권력다툼은 태조의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권력다툼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개국공신이란 범위가 정치, 군사적 공로와 함께 새로운 왕조의 통치에 필요한 세력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내재되었다.

반면, 김영렬의 생애와 활동을 살펴볼 때, 개국공신에 포함되지 않고, 좌명공신에 책봉된 점은 김영렬의 삶과 활동이 건국이후 본격화되고 태종대 가장 활발하였음을 반증한다. 1401년(태종 1) 1월 15일에 태종은 좌명공신을 책봉하며 교를 내려 그들의 공훈을 밝혔다.⁴¹ 좌명공신이란 공신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천명(天命)을 받들어 나라를 통치하는 권위를 보좌하여 역신(逆臣)세력을 제압한 공훈이 있는 공신이란 의미이다. 천명을 받들어 나라를 통치하는 권위는 조선의 왕실을 의미하며, 태조에서 정종으로 이어진 왕위의 계승이다.

역신은 2차 왕자의 난을 주도한 회안군과 박포의 세력을 지칭한다. 이들이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침범하려 하는 종사의 안위가 위급한 시점에 역신을 제압한 공훈이 있는 이들을 1등급으로 책봉했다. 상당후(上黨侯) 이저(李佇), 문하좌정승 이거이(李居易), 우정승 하륜(河崙), 판삼군부사 이무, 문하시랑찬성사 조영무, 좌군총제 이숙번, 중군총제 민무구, 좌군동지총제 신극례, 여성군(驪城君) 민무질 등 9명으로 의(義)에 따르고 사기(事機)에

41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1월 15일(을해).

응하여 계책을 정해서, 화난(禍亂)을 평정하고 종사를 편안히 하여, 충성을 다해 좌명(佐命)하였다는 공훈이었다. 이들에 대한 대우로 부·모·처는 3등 위로 봉증(封贈)하고, 직계 아들은 3등 위의 음식(蔭職)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를 2등 위 음식을 주었다. 또한, 밭 1백 50결, 노비 13명, 백은 50냥,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을 주고, 당사자가 입사를 하지 않았으면 입사를 허락했다.

예문춘추관 학사 이래(李來), 의안공 이화, 완산후 이천우는 2등으로 1등과 차등을 두어 대우했다. 3등은 창녕백(昌寧伯) 성석린(成石璘), 완천군(完川君) 이숙(李淑), 문하찬성사 이지란, 개성유후 황거정(黃居正), 지삼군부사 윤저(尹楮), 김영렬, 우군동지총제 윤곤(尹坤), 형조전서 박은(朴崑), 도승지 박석명(朴錫命), 상장군 마천목, 판전중사사 조희민(趙希閔), 봉상경(奉常卿) 유기(柳沂) 등 12명으로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러 번 충성을 바치어 익대 좌명하였다는 공훈이었다. 대우로 부·모·처는 1등을 올려 봉증되고, 직계 아들은 1등을 올려 음식을 받고 직계 아들이 없는 자는 조카와 사위가 음식을 받았다. 또한, 1품은 밭 80결, 노비 8구, 2품 이상은 백은 25냥, 3품 이하는 은대 1요,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3명, 진배파령 6명을 하사받고 처음 입사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태종의 언급을 통해 확인되는 공신 등급간 차이점을 확인해 본다. 1·2등은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 세력의 주축으로 상당한 권위를 가졌던 인물들이었던 것에 반해 3등 공신은 대부분 실제 병력을 동원하고 지휘하여 단계별, 분야별 책임자였다.

익대공신은 4등까지 있었다. 4등은 참찬문하부사 조박(趙璞), 삼사좌사 조온(趙溫), 참찬문하부사 권근, 삼사우사 이직(李稷), 참지삼군부사 유량(柳亮), 중군총제 조경(趙卿), 좌군총제 김승주(金承暻), 우군동지총제 서익, 동지총제 홍서(洪恕), 병조전서 윤자당(尹子當), 좌승지 이원(李原), 우승지 이승상(李升商), 한성윤 김정경(金鼎卿), 우부승지 서유(徐愈), 상장군 이종무(李從

茂), 이응(李膺), 심구령, 대장군 연사종(延嗣宗), 한규(韓珪), 김우(金宇), 문빈(文彬), 전 중군장군 윤목(尹穆) 등 22명으로 이들은 정성을 바쳐 협찬하고, 오래 호위하기를 부지런히 하여 익대 좌명하였다는 공훈이었다. 즉, 이들은 실제 왕자의 난 전투현장에 참여하되 탁월한 공훈을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방원의 세력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인물이었다. 좌명공신 3등으로 책봉된 김영렬은 실제 병력을 동원하고, 지휘하여 한 국면을 담당하여 이방원을 지지하였던 활동을 하였다고 상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시 김영렬이 지삼군부사로 정쟁의 한 가운데에서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었던 삼군부를 지휘한 점이 중요하다. 수군지휘관으로 외방에 있었으면 왕자의 난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개성의 삼군부에 지삼군부사였기에 가능했다.

1400년의 정국은 이미 이방원세력과 이방간세력간에 정치적 충돌이 속출하던 시기였다. 양 세력의 갈등은 1398년 8월의 1차 왕자의 난 이후 8월에 정사공신을 책봉하며 보다 노골화되었다. 그렇다면 양 세력간에 상호 군사충돌의 위험을 인지하였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를 갖추었다. 문제는 정종연간 이방원세력이 정국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이방간세력이 상대적으로 대비가 유리했다. 이는 왕자의 난 전개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방간의 거사모의는 처질이었던 판교서감사 이래에 의해 우현보(禹玄寶)를 통해 이방원에게 알려졌다. 이방원은 하륜, 이무 등과 대응책을 준비했다. 당시 삼군부에서 여러 공후(公侯)로 하여금 사냥을 하게 하여 독제(蠶祭)에 사용하고자 했다. 즉, 삼군부가 독제를 명목으로 사냥을 계획한 것이었다. 사냥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공식적 방법이었다. 삼군부가 주관하는 사냥이 양 세력간 군사충돌의 계기가 될 것이 명확했다. 이방원은 이화, 이천우 등 10여 명과 함께 대응책을 강구했다. 이방원은 예조전서 신극례를 시켜 정종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정종은 양 세력의 충돌을 중재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이방원은 또 다른 왕자였던 익안공이 이방간과 연대하지 않도록 하고, 이숙번, 민무구 등이 세력이 집결하자 이지란, 이화, 파자반(把子反), 주을정(注乙井), 묘각(妙覺) 등으로 하여금 종묘 등을 방비하도록 했다. 양 세력간 군사충돌은 개성의 선죽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치 및 충돌이 반복되었다. 실제 병력의 차이가 있어 이방간세력이 전투에서 패하였다. 서익, 마천목, 이유(李柔), 소근(小斤), 고신부(高臣傅), 이광득(李光得), 권희달(權希達) 등이 이방간을 추격하여 성군관 서동에서 이방간을 사로잡음으로 충돌은 종료되었다. 박포, 도진무 최용소(崔龍蘇), 이옥(李沃), 장담(張湛), 박만(朴蔓) 등이 이방간의 주요 무장이었다. 이방간과 연계하지 않았던 익안군 이방의는 모든 군권을 삼군부에 제출하여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다.⁴² 대호군 김중보(金重寶), 순군천호 한규 등 여러 무장이 주요 역할을 하였음이 기록에 보인다. 그러나 김영렬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2차 왕자의 난과 같은 군사충돌이 예견되던 시기에 개성의 주요 군사관부에 인사이동시킨 인물이라면 이방원의 입장에서 충분히 신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특히, 삼군부는 군령을 총괄하고 실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직책이었기에 왕자의 난에 김영렬이 깊이 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군지휘관이었음에도 개성의 군사지휘관으로 김영렬을 인사시키고, 왕자의 난에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지휘할 수 있는 삼군총제에 임명한 점은 이방원의 철저한 정치군사적 고려였다고 판단된다.

태종대 김영렬의 관직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태종의 정치적 지향에 김영렬이 부합되는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401년 6월에 김영렬은 정치적으로 환상서사사 이무(李茂)에게 분경(奔競)했다. 이로 인해 지의흥삼군부사 김영렬은 파직되었다. 금법을 어기고

42 『정종실록』 권3, 정종 2년 1월 28일(갑오).

분경하였기 때문에,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파직시킨 것이었다.⁴³ 김영렬보다 15살이 많았던 이무는 고려말 밀직사사 등을 역임한 문관으로 1393년(태조 2) 개성부윤으로 정계에 등용된 인물이다.

특히 이무는 태조대 경상도 군비를 점검하고, 중추원사로 예성강과 강화 등지의 수군을 점검하여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였던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1396년(태조 5) 조선에서 우정승 김사형(金士衡)으로 5도병마도통치치사로 삼아 왜구소탕의 일환으로 일기도(壹岐島)와 대마도를 정벌할 때 도체찰사로 참여한 인물이었다. 1398년 의흥삼군부좌군절제사가 되어 군무를 총괄하였다가 정도전·남은의 병력 동원 모의를 이방원에게 밀고한 인물이다. 이 공로로 이무는 정사공신 2등에 책봉되었다. 즉, 이방원의 측근으로 군무와 수군관련 업무를 경험한 인물이었다. 1400년(정종 2)에 동북면 도순문찰리사겸의흥부윤로 군무를 총괄하는 과정에도 정도전과 남은과의 기존 친교로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이무는 태종에 대한 신임을 얻고자 분발하였으며, 이후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데 앞장서 좌명공신 1등에 책봉되었다. 이 시기에 김영렬이 이무에게 분경한 것이었다. 이무와 김영렬의 관계는 이미 태조대 왜구에 대한 방비를 위해 군무를 함께 한 경험이 있으며, 무엇보다 바로 전해에 의흥부윤을 맡았던 이무와 업무수행상 교류가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무는 건국 이후 오랫동안 병권에 간여한 인물로 당시 외척이었던 민씨집안과 교류가 많았다. 이러한 교류는 이후 태종에 의해 이무가 민씨집안과 연계된 정치세력으로 판단을 받아 이지성 인사문제를 계기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⁴⁴ 이무는 실질적으로 문무를 겸비하여 군사활동과 행정능력을 구비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태종에 의해 강력한 왕권을 만드는 과정에

43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6월 24일(신사).

44 남지대, 「조선 태종은 왜 李茂를 죽였을까」, 『규장각』 50(2017).

공신으로 병권에 오랫동안 간여하고 외척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물이라 판단되어 제거된 인물이다.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지만, 김영렬은 곧 경기좌우도 수군도절제사로 임명되어 수군지휘관의 생활을 하였다.⁴⁵ 이런 김영렬의 관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조사의의 난이었다. 태조의 밀지를 받은 조사의가 동북면세력을 규합하여 개성을 위협한 반란으로 초기 관군이 연전연패하자 태종이 직접 군을 지휘하여 토벌한 반란이다. 이때 강력한 반란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관건은 동북면과 반란세력을 단절시키는 임무였으며, 김영렬은 동북면·강원도 도안무사로 조영무, 이천우, 이귀철 등과 함께 활약하였다.⁴⁶ 참전한 김영렬은 조사의를 사로잡는 공을 세워 태종의 신임을 받았다.⁴⁷

조사의의 난을 진압한 뒤 김영렬은 경기좌우도 수군도절제사로 복귀하여 1404년(태종 4) 3월까지 근무했다. 이 시기 태종의 김영렬에 대한 신임은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런 신임은 주변에서 김영렬을 비방하는 소재가 되기도 했다. 주변의 비방에 김영렬이 사직을 청했지만, 태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김영렬은 1404년 3월에 삼도수군도지휘사로 승진했다.⁴⁸ 태종 즉위 초 왜구의 출몰을 근절하기 위한 태종의 군사지지를 수행한 인물이었다. 이는 1404년 8월에 김영렬이 참관승추부사에 임명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⁹

한편, 태종은 한성으로 천도를 미리 계획하고 1404년 시행했다. 1404년 10월 11일은 태조의 생일이었다. 태종이 탄일을 맞아 찾아뵈어 하례하고

45 『태종실록』 권2, 태종 1년 7월 8일(을미).

46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12일(신묘).

47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2월 7일(병진).

48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3월 13일(갑인).

49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 8월 6일(을해).

헌수하였는데, 태조는 “도움을 한양으로 정하고 열 곳의 인민을 청해 얻었으니, 효(孝)가 막대하다.”고 태종을 칭찬하였다.⁵⁰ 70대의 태조에게 1차 왕자의 난, 정종의 즉위, 조사의의 난, 2차 왕자의 난, 태종의 즉위로 이어지는 태조와 태종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장면이었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왕도는 개성이 1392~1394년, 1399~1405년간이었으며, 한성은 1394~1399년, 1405~1897년간이었다.

김영렬은 사직한 이후 관직 및 군사분야에 대한 관심을 접고 장단의 맹암(孟巖)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다.⁵¹ 문제는 사망시점이다. 실록에는 의성군 김영렬은 1404년(태종 4) 12월 1일에 사망했다. 김영렬의 사망에 태종은 3일간 조회를 정지하고 양소(襄昭)라는 시호를 하사했다.⁵² 그렇다면 1404년 8월까지 수군지휘관으로 관직생활하던 김영렬이 사직한 뒤 4개월 뒤 사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김영렬이 1404년 사망하였다면 향년 35세로 사망한 것이며, 실제 수군지휘관으로 한참 활약하던 인물이 급사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문집자료를 살펴보면, 1421년(세종 3) 향년 62세로 사망하여 장단에 묘를 세웠다고 한다. 이는 이후 실록기사에 등장하는 김영렬의 장단장지와 일치한다.

김영렬의 후손은 이후 아주 번성하지는 않았다. 이는 명종대 새로운 왕릉의 후보지를 결정할 처음 신릉을 점혈(點穴)한 곳에 돌이 많아 새로운 후보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확인된다. 장단과 대방동(大方洞)이 후보지로 거론되자 명종이 중종대 대방동이 후손이 없는 자리로 배제되었음을 언급

50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 10월 기묘(11일). “上朝太上殿行賀禮 進衣櫛獻壽. [...] 太上王謂上曰 定都漢陽 得請十處人民, 孝莫大焉.”

51 『맹암집』(古3428-547) 권1, 詩: 書. 『맹암집』에 수록된 김영렬의 시는 관직제수에 대한 임금의 은혜와 응하지 않고 자연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서는 하륜, 조영무 등 인물에게 사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52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 12월 1일(무진).

했다. 이에 윤원형이 대방에 장지를 둔 김사청(金士淸)의 후손이 오히려 많고, 장단에 장지가 있는 김영렬의 후손이 매우 적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즉, 김영렬은 사후 후손들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⁵³

Ⅲ. 김영렬의 군사활동과 역사적 의미

조선은 건국이후 수군을 별도의 군사편제로 구성하여 각 도별로 1~2명의 수군도절제사를 두고, 휘하의 각 포와 진에 수군도첨절제사, 수군처치사를 두어 해금 및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도록 했다. 방어체계의 측면에서 보면, 주진에 수군절도사(水使)를, 거진에 수군첨절제사를, 제진에 만호를 두어 수군을 지휘하도록 한 것이다. 수군의 지휘체계는 도절제사가 각 도의 연해변에 위치한 진·포·보에 소속된 전선과 주장인 첨절제사(중3품)·우후(정4품)·동첨절제사(중4품)·만호(중4품)·권관(중9품) 등을 지휘, 통솔하였다. 즉,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료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김영렬의 관직생활은 중3품의 수군도첨절제사로 경기우도를 담당하였다.

김영렬이 수군지휘관으로 활약하였던 시기의 해양군사상황을 살펴보면 왜구의 침입이었다. 조선건국이후 초기 왜구의 침입에 지역별 출몰상황은 왜구로 인한 군사상황의 특징을 보여준다. 한 번도 출몰한 기록이 없는 함경도, 4차례만 존재했던 강원도 등지는 왜구의 피해가 거의 없었다. 이에 비하여 경상도와 전라도는 가장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며, 서해안에 위치한 평안, 황해, 경기의 경우는 주로 명을 침입하는 왜구가 경유지로

53 『명종실록』 권31, 명종 20년 5월 30일(을축).

침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왜구는 1393년(태조 2)부터 1399년(정종 1)까지 서해방면에 24차례 침입했다. 이후 왜구의 서해침입은 급격하게 줄어 1408년(태종 8), 1409년(태종 9)에 4회, 1419년 대마도정벌 직전 3회 등뿐이었다. 왜구의 이러한 침입경향에서 하나 주목되는 점은 왜구의 투항이다. 왜구는 1399년 평안도 선주(宣州), 박주(博州), 황해도 웅진, 풍주(豐州) 등지를 침입했다.⁵⁴ 당시 왜구의 우두머리는 등망(藤望), 오시라(吾時羅)였다.⁵⁵ 이들 왜구가 왜선 7척에 60여 명이 11월에 조선에 투항했다.⁵⁶ 이들 왜구가 서북면 선주에 와서 항복을 청하자 조선은 항왜 구육(仇陸), 등곤(藤昆) 등을 보내 초유하고, 안마(鞍馬)와 의관을 하사했다. 왜구가 서해방면에 침입한 것은 원래 목적지 명 연해를 침략하고 조선의 서해에 이르러 침입하였던 것이다. 명을 노략질하고 일본으로 복귀하던 중, 일본의 육주목(六州牧) 오우치 요시히로(高義弘)가 자신들의 본거지였던 북규슈를 섬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에 투항한 것이었다. 또한, 왜구의 투항은 1398년 말 신임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의 왜구에 대한 비우호적 경향도 영향을 주었다.

군사사에서 조선의 서해방면 즉 평안도와 황해도를 침입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 연안에 안전하게 상륙하는 방법이 확보되어야 하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했다.⁵⁷ 여말선초 한반도 출몰한 왜구는 자신들의 침략 경험을 바탕으로 약탈의 소득이 큰 지역을 지속적으로 침입하였다. 또한, 다른 왜구세력과 충돌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침략지역을 거듭 침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왜구는 조선의 방비가 강력하면 우호적인 자세를 보여 납치한 조선인을

54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9월 10일(정축); 10월 1일(정유); 19일(을묘).

55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11월 25일(신묘).

56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11월 8일(갑술).

57 村井章介, 『日本中世境界史論』(岩波書店, 2013), 126~144쪽.

인계하기도 했다.⁵⁸ 1409년(태종 9) 황해도 장산곶에 나타난 왜선 14척은 자신들이 사로잡은 부녀자 17명을 미라산(彌羅山) 봉줄에게 맡기고 갔다. 사전에 정탐한 왜구가 조선의 방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녀자를 인계한 뒤 백령도 쪽으로 사라졌다. 조선초 태조대 극성을 보였던 왜구침입은 태종대이후 점차 소멸되었는데, 조선의 군사적 대응, 오우치 요시히로의 왜구토벌, 대마도에서 소 사다시게의 왜구 금압정책 등으로 왜구집단이 축소되었다. 1399년 11월 등망오시라의 투항 이후 왜구는 실질적으로 소멸하고, 1408년, 1409년, 1419년에 간헐적으로 명을 침략하기 위한 한반도 경유과정에 출몰이 있었다.

한편, 가장 왜구의 침입이 많았던 경상도, 강원도 등 동해지역을 살펴보면, 1396년(태조 5) 8월 9일, 120척의 대규모 왜구가 경상도에 출몰하여 조선의 병선 16척을 탈취하고, 수군만호 이춘수(李春壽)를 죽이고, 동래, 기장, 동평성(東平城)을 점령하였다. 뒤이어 경상도 통양포(通洋浦)를 침입하여 조선병선을 탈취하고, 영해성(寧海城)을 점령하는 등 기세를 올렸다.⁵⁹ 조선이 경상도 각 지역의 방비를 강화하자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가 10월에 동래성을 포위하고, 조선병선 21척을 불태웠는데, 이 과정에 조선의 수군만호 우고 수군만호 윤형(尹衡), 임식(任軾) 등이 전사했다. 11월, 왜구가 평해성을 포위하자 조선은 곽충보(郭忠輔), 이천우를 강릉도에 파견하여 진압하도록 했다. 뒤이어 강원도의 울진, 울주 등지를 침입했다.⁶⁰ 1396년 12월에 갑자기 동해연안에서 출몰하던 왜구의 우두머리 나가온(羅可溫)이 투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⁶¹ 나가온은 배 60척으로 영해의 축산도

58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2월 18일(신묘).

59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8월 9일(갑오); 18일(계묘); 23일(무신).

60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8월 12일(정유); 18일(계묘); 25일(경술); 26일(신해); 10월 27일(신해); 11월 5일(기미); 9일(계해); 13일(정묘); 17일(신미).

61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4월 27일(기유); 권13, 7년 2월 17일(갑오).

(丑山島)에서 투항했다.⁶²

조선의 입장에서 경상도, 강원도 등지에 출몰하던 나가온의 왜구가 투항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다. 그러나 나가온은 명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시적인 이유로 조선에 투항하였던 것으로 보이며⁶³, 실제 투항한 뒤 1397년(태조 6) 1월 3일, 울주포에서 지울주사 이은(李殷), 반인 박청(朴靑), 기관 이예(李藝)를 납치하여 도주하였다.⁶⁴ 도망갔던 나가온은 4월 1일에 왜선 24척을 거느리고 다시 투항했다.⁶⁵ 당시 나가온은 처음 김사형의 대마도 정벌을 인지하지 못하고 처음 투항하였다가 뒤에 대규모 정벌사정을 확인한 뒤 거듭 투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왜구출몰을 근절하기 위해 태조는 1396년(태조 5) 조선수군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대마도와 일기도를 정벌했다. 12월 3일, 태조는 문하 우정승 김사형을 오도병마도통처치사로, 예문춘추관 태학사 남재(南在)를 도병마사로, 중추원 부사 신극공(辛克恭)을 병마사로, 전 도관찰사 이무를 도체찰사로 임명하여 5도의 병선을 동원하여 대마도와 일기도를 정벌하도록 했다. 조선 건국이후 첫 대규모 정벌이었기에 태조가 직접 남대문 밖에서 정벌군 지휘부를 전송하고 김사형에게 부월(鈇鉞)과 교서(敎書)를 하사하고 안마(鞍馬)·모관(毛冠)·갑옷·궁시·약상자를 내려주고, 다른 지휘관에게 각각 모관·갑옷·궁시를 내려 주었다. 당시 도당은 한강까지 나와 김사형을 전송했다.⁶⁶

당시 태조가 정치, 군사적 부담을 감내하며 대규모 정벌군을 출정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태조가 감내한 부담은 무엇인가? 고려말 갖은 고비를

62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2월 9일(계사).

63 정영현, 「동해안의 왜구와 쓰시마 畠田氏」, 『한국민족문화』 67(2018), 223~225쪽.

64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1월 3일(병진).

65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4월 1일(계미).

66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2월 3일(정해).

넘어 역성혁명이란 전통적인 통치이념에 어긋나는 정치, 군사적 결정과 사건을 통해 개국한 조선이었다. 조선의 국왕으로 통치권을 위협하는 것은 기존 고려의 잔존세력일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익관계를 달리하는 정치세력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의 만백성을 다스림에 외침을 물리치고 내외를 평화롭게 해야 하는 책무가 있었다. 그러나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의 연해를 침입하여 백성을 노략질하고 조선의 병선을 불태우는 왜구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책무를 완수할 수 없었다. 군사적으로 허약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민심의 이반 및 태조에 대한 군사적 반감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런 필요성에서 대규모 정벌을 통해 왜구의 근절을 달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개국 이후 여전히 국왕의 군사력 장악이 완전하지 않은 시점이었다. 특히, 이성계 자신이 고려의 강력한 요동정벌군을 장악하고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했던 당사자였다. 비록 수군이었지만, 경상, 전라, 충청, 경기, 강원의 5도 수군력을 총동원하여 구성한 정벌군이었다. 김사형, 남재, 신극공, 이무 등을 최고지휘부로 하는 이유가 있었다. 이들은 물론 무장도 있었지만, 문관출신이다. 구체적인 사료는 없지만, 최고지휘부는 김사형 등으로 구성하지만, 실질적인 병력지휘는 오도의 군사지휘관 절제사가 맡았을 것이다. 이는 문관의 통제를 받는 대규모 정벌군의 실질적인 병력지휘를 태조의 신임이 높은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던 것이다. 대규모 정벌군을 출정시킨다는 점은 군사동원을 한다는 것으로 백성들의 노고와 피로감을 가져온다. 실제 태조는 교서를 통해 자신이 왜구의 출몰에도 정벌군을 당장 보내지 못한 것이 백성들이 동요할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라 언급하기도 했다.⁶⁷

67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2월 3일(정해).

한편, 김사형의 대마도 정벌군 구성 및 일정,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한 관련 기사를 참조하여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1396년 12월 3일 한양을 출발한 김사형 등 지휘부는 분명 동래와 부산진으로 향하였을 것이다. 5도에서 지휘관의 지휘하에 부산으로 집결하여 군령을 확립한 뒤 기상을 고려하여 출정하였을 것이다. 태조가 경흥윤(敬興尹) 장자충(張子忠)을 보내어 김사형에게 궁운을 내려준 시점은 12월 22일이다.⁶⁸ 1397년 1월 30일, 김사형은 정벌을 마무리하고 복귀하자 태조가 흥인문(興仁門) 밖까지 거동하여 맞아 위로했다.⁶⁹ 또한, 태조는 이후 의안백 이화, 좌정승 조준, 봉화백 정도전 등으로 하여금 김사형에게 잔치를 베풀도록 하고, 서대(犀帶)를 하사하였다.⁷⁰ 이러한 김사형에 대한 태조의 입장을 통해 김사형의 대마도 정벌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사형의 대마도 정벌군이 복귀하기 전에 왜구가 투항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달아나도록 한 죄를 물어 김사형이 당시 각도의 절제사로 기한 내에 경산부에 집결하지 못한 경상도 도절제사 최운해, 충청도 도절제사 이귀철, 전라도 도절제사 김빈길, 경기우도 절제사 김영렬 등이 경산부에 잡혔던 사건이 있었다. 김사형은 각 도의 도절제사, 절제사에 대한 처벌을 태조에게 긴급하게 보고했다.⁷¹ 경기우도 절제사 김영렬 역시 김사형의 대마도 정벌군의 일원으로 원래 경산부에 기한 내에 집결해야 했지만,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왜구의 투항이란 군사상황에 연결되어 경산부에 사로잡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뒤에 이들은 경산부에서 순군옥(巡軍獄)으로 이감되었으며, 대간과 형조에서 국문하였다. 이에 우정승 김사형과 의성군(宜城君) 남은(南間)이 감면을 태조에게 요구하였다.⁷² 이는 김사형

68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2월 22일(병오).

69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1월 30일(계미).

70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2월 8일(신묘).

71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1월 28일(신사).

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직접 기한내 집결지에 집결하지 못한 죄목으로 비록 잡아두었지만, 정벌군에서 자신의 휘하 무장이었기에 죄의 감면을 요구하였다.

김영렬의 군사활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3가지이다. 첫째는 수군지휘관으로 왜구의 출몰을 근절하는데 공을 세운 점이며, 둘째는 왕자의 난에 참여하여 삼군부의 수장으로 이방원세력이 승리하는데 공을 세운 점이며, 셋째는 조사의 난 진압에 참여하여 실제 조사의를 사로잡아 태종에게 바친 인물이었다. 이 가운데 왕자의 난에 참여한 군사활동은 앞 장에서 관직생활 부분에서 살펴본 것으로 대신한다. 왜구를 근절하는 군사활동에서 김영렬은 개성과 한성으로 직접 들어오는 왜구를 방비하는 경기좌우도의 수군첨절제사, 수군도절제사로 활약했다. 태조대까지 활동사항은 앞에서 살펴봤다. 왕자의 난으로 공신에 책봉된 김영렬은 다시 경기좌우도 수군도절제사로 활약했다.

태종은 왜구출몰에 대한 정보를 접수하면 김영렬을 특정 지역으로 보내 방비하도록 하였다. 일례로 전라도 수군절제사가 왜선 9척이 서북면으로 향한다는 보고를 하자 태종은 김영렬을 풍해도 서북면에 보내어 왜적을 방비하게 하기도 했다.⁷³

전국 해안의 왜구방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수군의 군역은 매우 고된 것으로 이탈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에 김영렬은 자신의 관할 경기도 교동, 강화의 수군으로 이탈한 자들을 조사하여 수군역을 환정(還定)하도록 태종에게 건의하여 시행했다.⁷⁴

이렇게 수군지휘관으로 활약하던 김영렬은 조사의(趙思義) 반란에 큰

72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2월 11일(갑오).

73 『태종실록』 권2, 태종 1년 7월 8일(을미).

74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2월 5일(무오).

활약을 하였다. 태종 즉위 초 최대 군사위기는 조사의 난이었다. 김영렬은 조사의의 난 진압에 있어 조사의와 아들 조홍을 사로잡는 공을 세웠다. 중앙군과의 전투에서 패한 조사의는 패잔병을 이끌고 안변으로 도망하였는데, 이때 도안무사로 활약하던 김영렬이 포위하여 사로잡았다. 김영렬은 전 전서 조중생(曹仲生)으로 하여금 태종에게 압령하도록 했다.⁷⁵

1402년 조사의가 태조의 밀지를 받아 반란을 일으키자 초기 세력이 대단했다. 이에 태종은 조영무를 동북면·강원·충청·경상·전라도 도통사로, 이빈을 서북면도절제사로, 이천우를 안주도 도절제사로, 김영렬을 동북면·강원도 도안무사로, 유량을 풍해도 도절제사로 삼았다.⁷⁶ 조영무·이천우·김영렬·이귀철 등의 주요 부대는 신속하게 출정했다.⁷⁷ 특히 조사의가 진격하는 군사축선에 정면으로 출정한 김영렬 부대에 대해 태종은 권총(權衷)을 경기좌·우도 절제사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김영렬을 지원하도록 하고, 각종 약물과 병기를 내려 주었다.⁷⁸ 출정한 김영렬은 조영무·신극례 등과 함께 철령으로 향했다.⁷⁹

조사의의 반란군은 11월 27일에 안주에서 궤멸되었다. 동북면에 대한 태종의 무마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반란군에서 이탈자가 속출하고 사기는 저하되었다. 당시 동원된 태종의 관군은 크게 세 방향으로 조사의를 압박했다. 먼저 조영무는 동북면에서 반란군과 연결을 차단함으로써 조사의를 압박했으며, 이천우, 이빈, 김영렬, 최운해 등은 맹주(孟州)에 이르러 반란군을 압박했으며, 그 후방 황주에서 봉주까지 4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반란군의 무장이었던 조화(趙和)가 군중에서 도망하려고 꺾하여, 밤에

75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2월 7일(병진).

76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12일(신묘).

77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13일(임진).

78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15일(갑오).

79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21일(경자).

군막에 불을 지르자 반란군이 궤멸한 것이었다.⁸⁰

조사의의 난 이후 김영렬은 경기좌우도 수군도절제사로 임명되었다. 김영렬의 수군도절제사 임명에 대해 당시 여론은 좋지 않았다. 1403년 7월에 김영렬은 태종에게 사직상소를 올려 물러나고자 하였지만, 태종은 윤허하지 않았다.⁸¹ 태종의 입장에서 즉위 초 자신의 신임이 두터운 김영렬을 개성에서 가장 근접한 경기도 수군도절제사로 둬으로써 안정적인 통치의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404년(태종 4) 3월에 김영렬은 삼도수군도지휘사에 임명되고, 체복사로 임명된 침총제 박자청(朴子靑)과 함께海道(海道)에서 능히 왜구를 방어하지 못하는 자에게 서약서로 감결(甘結)을 받았다.⁸² 이는 수군지휘관들의 근무 태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목을 내놓겠다는 군령장을 미리 받아두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였다. 이처럼 삼도수군도지휘사로 조선의 수군을 총괄하였던 김영렬은 실제 왜적이 왜선 33척으로 전라도로 향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직접 전함을 이끌고 방어하기도 했다.⁸³

실록에서 확인되는 마지막 김영렬의 군사활동은 1404년 8월이다. 김영렬은 다양한 수군활동으로 공적을 세우자 참관승추부사에 임명되었다.⁸⁴ 그러나 실제 김영렬은 수군 지휘관으로 활동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관승추부사에 임명된 뒤에도 왜선을 포획하고 왜구를 생포한 공로로 표리를 하사받았던 점에서 확인된다.⁸⁵

80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27일(병오).

81 『태종실록』 권6, 태종 3년 7월 23일(무술).

82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3월 13일(갑인).

83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 7월 1일(경자).

84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 8월 6일(을해).

85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 8월 8일(정축).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조선건국은 여말선초 격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다양한 인물이 새로운 조선의 지향점을 두고 갈등하고 충돌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의 특징은 대륙에서 원명교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 요동을 중심으로 한 명과 조선의 외교적 갈등, 새로운 국가 조선의 통치방향 및 정치투쟁으로 인한 정변 등이 일어난 점이다. 이러한 역동적인 시대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여 역사전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정치, 군사, 사상적 큰 활동을 전개했다. 조선 개국기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교체라는 일대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구분의 한 분기점이 될 정도로 시대성이 중요했다. 이런 시대성에 기초하여 많은 인물연구가 이루어져 현재의 우리에게 시대상의 개략적인 면을 알려준다.

왕조의 설계자로 주례에 입각한 사대부중심의 공론정치를 추구하였던 정도전과 고려말 시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조선의 튼튼한 국왕권을 주장하였던 이방원으로 일반적으로 이 시대를 읽는다. 그러나 대표성과 상징성이 가지는 역사의 진실성을 고려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며 다양한 역사활동을 전개했던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향후 보다 천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인물 중 한 명으로 김영렬이 있다. 김영렬은 조선의 개국과 함께 관직에 진출하여 태조대 수군지휘관으로 관직생활을 펼쳤다. 또한 당시 최대의 군사문제 중 하나였던 왜구출몰에 대응하여 경기도 수군을 총괄하여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뒤이어 친이방원의 정치적 입장은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전 중앙의 삼군부에서 실제 병력동원을 관장하는 이유가 되었다. 왕자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김영렬은 좌명공신으로 확고한 명성과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태종의 시대에 김영렬은 경기도

수군을 넘어 삼도수군을 총괄하여 국방정책 가운데 해양정책 및 해양방어를 책임졌다.

김영렬의 삶과 활동을 재구성하기 위한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료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김영렬의 정치활동, 인친관계, 군사활동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이는 시대분석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조선 건국에서 세종대까지 한국사 연구는 매우 제한된 사료로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료에 대한 면밀한 사료비판을 통해 역사의 사실을 재구성하고, 현재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미래의 역사담론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맹암집』(古3428-547).

『맹암선생문집』(古819.51-G429m).

『삼봉집』(奎726).

『명태조실록』(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 臺北: 中文出版社, 1968).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세조실록』, 『명종실록』(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온라인서비스).

2. 단행본

김경록,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7.

한영우, 『조선전기사회경제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83.

_____,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서울: 지식산업사, 1999.

村井章介, 『日本中世境界史論』. 東京: 岩波書店, 2013.

3. 논문

김경록, 「조선초기 종계변무의 전개양상과 대명관계」. 『국사관논총』 108, 2006, 147~183쪽.

_____, 「조선초기 귀화정책과 조명관계」. 『역사와 현실』 83, 2012, 213~247쪽.

_____, 「조선초기 군인송환문제와 조명간 군사외교」. 『군사』 83, 2012, 221~258쪽.

_____,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 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 35, 2011, 1~33쪽.

_____, 「홍무연간 명의 요동경략과 조명관계」. 『군사』 102, 2017, 187~226쪽.

남지대, 「조선 태종은 왜 李茂를 죽였을까」. 『규장각』 50, 2017, 1~32쪽.

_____, 「조선 태종의 왕권 확립」. 『역사문화연구』 53, 2015, 159~192쪽.

박성호, 「조선초기 좌명공신 김영렬 공신문서에 대한 고찰」. 『고문서연구』 50, 2017, 159~180쪽.

박천식, 「조선 개국공신에 대한 고찰: 책봉 과정과 대우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1, 1977, 167~199쪽.

- 위은숙, 「13~14세기 고려와 요동의 경제적 교류」. 『민족문화논총』 34, 2006, 475~511쪽.
- 정영현, 「동해안의 왜구와 쓰시마 畠田氏」. 『한국민족문화』 67, 2018, 199~233쪽.
- 최승희, 「태종조의 왕권과 정치운영체제」. 『국사관논총』 30, 국사편찬위원회, 1991, 1~36쪽.

국문초록

조선 개국기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교체라는 일대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구분의 한 분기점이 될 정도로 시대성이 중요하다. 김영렬은 조선의 개국과 함께 관직에 진출하여 태조대 수군지휘관으로 관직생활을 펼쳤다. 김영렬은 당시 최대의 군사문제 중 하나였던 왜구출몰에 대응하여 경기도 수군을 총괄하여 큰 공을 세웠다. 김영렬은 뒤이어 친이방원의 정치적 입장에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전 중앙의 삼군부에서 실제 병력동원을 관장했다. 왕자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김영렬은 좌명공신으로 확고한 명성과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태종의 시대에 김영렬은 경기도 수군을 넘어 삼도수군을 총괄하여 국방정책 가운데 해양정책 및 해양방어를 책임졌다. 김영렬의 군사활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3가지이다. 첫째는 수군지휘관으로 왜구의 출몰을 근절하는데 공을 세운 점이며, 둘째는 왕자의 난에 참여하여 삼군부의 수장으로 이방원세력이 승리하는데 공을 세운 점이며, 셋째는 조사의 난 진압에 참여하여 실제 조사의를 사로잡아 태종에게 바친 인물이었다.

투고일 2022. 10. 31.

심사일 2023. 2. 1.

게재 확정일 2023. 2. 15.

주제어(keywords) 맹암 김영렬(孟巖 金英烈, Maengam Kim Yeong-reol), 조선(朝鮮, Joseon), 개국(開國, Found a Country), 수군(水軍, the Naval Forces), 왜구(倭寇, Japanese Invasion), 좌명공신(佐命功臣, Jwamyong Meritorious Retainers), 태종(太宗, King Taejong)

Abstract

The Life and Military Activity of Maengam Kim Yeong-reol in the Earlier Joseon

Kim, Kyeong-lok

Joseon's founding was a period of division in history, focusing on the transition from the Goryeo to the Joseon Dynasty. Maengam Kim Yeong-reol(孟巖 金英烈) was born during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and was an active member of the military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太宗). When employed in the government post of the Joseon Dynasty, Kim Yeong-reol worked mainly as a naval commander. In addition, h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naval forces of Gyeonggi-do following the Japanese invasion, which was one of the biggest military incidents at the time. Subsequently, since he had a favorable political position with Lee Bang-won(李芳遠), the Central Three Military Division(三軍府) took charge of the actual mobilization of troops before the second prince rebellion(2次 王子亂) occurred. Having contributed to the suppression of the prince's rebellion, Kim Yeong-reol gained a reputation and status as a Jwamyong meritorious retainer(佐命功臣). During the Taejong era, Kim Yeong-reol was responsible for maritime policy and defense within the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oversaw the three-do naval forces, in addition to the Gyeonggi-do naval forces. There are three factors of note regarding Kim Yeong-reol's military activities: 1) the naval commander contributed to eradicating the appearance of Japanese pirates; 2) he participated in the second prince rebellion and contributed to Yi Bang-won(李芳遠)'s victory as the commander of the central three military division; and 3) he participated in the suppression of the Josai(趙思義) rebellion and captured the leader and dedicated the act to King Taejong.